

뿔 달린 말, 초원을 달려 신라로 왔다

유라시아 역사 기행

강인욱 지음

한국 고대사 관련 유적 중에는 그 계통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신라 미술의 정수로 꼽히는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총 장니'(국보 제207호)가 대표적이다. 허연 입김을 내뿜고 갈기를 휘날리며 하늘을 헤쳐나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천마도에서는 엑스레이 투시결과 유물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이마 위 뿔이 드러났다. 실제 머리에 뿔을 단 천마는 말을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누비던 민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이미지였다.



젊은 고고학자인 경희대 사학과 강인욱 교수는 최근 펴낸 '유라시아 역사 기행'에서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천마도가 신라에 남은 북방 초원 문화의 영향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한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우리 고대사 유적의 다양한 곳에서 초원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강 교수는 이 책에서 세계에서 잊힌 북쪽의 문명에 주목한다. 스키타이, 흉노, 투르크, 아바르 등으로 지칭되는 수많은 초원 민족들이 그 주인공이다. 말을 타고 유라시아 대륙 곳곳을 누비던 그들이 인류 문명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강 교수의 주장이다.

"정착민들은 자신들과 다른 초원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초원에 대한 공포와 몰이해는 '야만'과 '미개'의 이미지로 탈바꿈했고, 찬란했던 초원의 역사는 정착 문명의 의도된 침묵으로 지워졌다. 우리가 북방 초원 민족들을 '오랑캐'라고 멸

시하게 된 것도 초원에 대한 '중화 문명'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탓이다."

러시아에서 북방 고고학을 전공한 저자는 유럽과 러시아, 몽골, 중국, 중앙아시아의 최신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이 문제에 색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4대 문명'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사의 발전을 이끌었던 초원에 '제5의 문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또 지금까지 단편적으로만 제시되어 온 초원과 한반도의 관계를 선명하게 그려낸다.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된 이 책은 5000년 초원 문명이 이어지는 동안 유목민과 정착 문명의 교류를 앞서 다룬다. 이어 동아시아 역사의 한 축을 구성했던 중국 북방 초원 민족의 역사, 신라에서 발굴된 다양



신라 미술의 정수로 꼽히는 경주 천마총 출토 '천마총 장니'(국보 제207호)에서는 유라시아 대륙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머리에 뿔 달린 천마의 모습이 확인됐다. <민음사 제공>

한 초원계 유물의 기원, 초원 국가들과 교류와 대결을 반복했던 고구려의 역사, 조선시대 등을 거치면서 이어져 왔던 한반도

와 초원의 교류를 조명한다. <민음사·1만8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인생의 모서리에서 만난 질문들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쏟아진다

생각의 모험

신기주 지음

인터뷰집을 읽는 건 두 가지 경우다. 화제가 되는 인물의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고 싶을 때와 인터뷰어가 과연 어떤 질문을 던져, 기존의 인터뷰들과 다른 이야기를 끌어낼까 궁금할 때다.

'생각의 모험-인생의 모서리에서 만난 질문들'은 철저한 인터뷰어가 흥미로워 집어든 책이다. 저자는 '에스콰이어' 기자인 신기주다. 그는 영화전문잡지 '필름 2.0' '프리미어', 남성 잡지 'GQ',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거쳤다. 영화 잡지에서 처음 접한 글은 접근 방식이 남달랐다.

이번에 그가 만난 사람은 모두 16명. 대한민국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내로라하는 인물들로 '에스콰이어'와 '인물과 사상'에 실렸던 글을 모은 책이다.

그가 만난 인물은 철학자, 의사, 언론인, 정치학자, 예술인 등 다채롭다. 인문사회 비평서 '우리는 왜', 경영서 '사라진 실패', 정치 평론집 '장기 보수 시대'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써온 그의 스펙트럼에 걸맞게



깊이 있는 질문으로 다양한 인물들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끌어냈다. 그는 인터뷰란 '진실과 진리와 지혜를 얻는 고도의 대화의 단계'로 '인터뷰의 절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한다. 수많은 인터뷰에서 매번 빼놓지 않고 던지는 필생의 질문은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고, 그 질문이 진심인지를 느낄 때 인터뷰이들도 진심으로 답한다고 믿는다.

저자는 철학자 강신주와 정신과 의사 김해남에게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묻는다. '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주진우 기자와 절필한 고종석이 답한다. 정치(강준만·한상진), 자본주의(장하성·정대인), 예술(황두진·배병우), 영화(천명관·원신연), 사회(표창원·김호기), 진실(정관용·왕상한) 등 다양한 주제로 대담이 전개된다.

<인물과사상사·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곤충들의 수다= '한국의 파브르'라고 불리는 곤충 학자 정부희 박사의 곤충 에세이. 한국의 산과 들에서 만난 자연의 곤충들과 20여 년간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생생한 기록이다.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풀숲에서 생사를 겪고 펼쳐지는 곤충들의 모험과 도전, 두려움과 인내, 열정과 사랑을 오랜 시간 마주한 저자는 정성어린 손길로 곤충들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을 세상 속으로 오롯이 끌어내었다.

<상상의 숲·1만5000원>

▲소년 시대=만 38세의 나이로 요절한 아쿠타가와상 수상작가 가시와바라 효조의 장편소설. 전쟁을 피해 시골로 전학을 간 도시의 우등생 소년인 압제적인 반장을 정점으로 한 시골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거둬들이는 굴욕을 담고도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에 환멸을 느낀다는 이야기. 작가가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



작한 이 시대 중반 동인지에 연재했던, 작가의 전성 체험에 기반을 둔 작품이다. <서커스·1만4000원>

▲인도 세밀화=인도 세밀화를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최초의 책. 세밀화라 부르는 이유는 손바닥만한 크기에서부터 큰 것도 한 번의 길이가 40cm를 넘지 않을 정도로 작은 화면에 그렸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인도 세밀화의 역사적 연혁과 풍격의 변화를 서술하고, 서로 다른 화파와 화가 및 작품들의 예술 특색을 분석하고 있다. 190여 컷의 인도 세밀화를 대표하는 도판들을 엄선해 수록했으므로,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도 충분하다. <다른생각·3만8000원>

▲반론의 성서 이야기=역사가 반론이 안내하는 성서의 세계. 밤낮도 존재하지 않았던 태초의 지구에서부터 출발해 초대 교회의 역사까지 아우르는 '반론의 성서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도 성서를 즐겨 읽어볼 수 있게 해 주는 성실한 가이드북이다. 책은 성서를 뒤덮은 온갖 잡다한 것들을 걷어내고 말쑥한 맨얼굴을 보여 준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쓴 것처럼 이 책은 '한자도 빼고 더할 없이' 성서의 족적을 따르고 있다. <삼인·1만8000원>



▲스페인 은의 세계사=이탈리아의 저명한 역사학자 카를로 치폴라가 생애 말년에 자신의 주 전공인 화폐사로 돌아와 저술한 책. 스페인 은화의 오디세이를 통해 동서양 두 세계가 파노라마처럼 연결되는 역사적 과정을 복원해 보여준다. 아메리카로부터 막대한 양의 은을 건네받아 눈 깜짝할 새 세계 최강국이 된 스페인. 그러나 은은 곧 스페인 제국의 통제를 벗어나 세계로 퍼져 나갔고, 가히 혁명적인 방식으로 대륙 간 장대한 무역의 발전을 촉진했다. <미지북스·1만1800원>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 교육론=프리드리히 폰 실러는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다. 실러는 책의 1부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에 아름다움과 예술을 통한 이상사회 건설의 이념을 담고 있다.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어떠한 정치적 혁명도, 제도 개선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 책이 필요한 까닭이다. <대화문화이카데미·2만2000원>

어린이 책

▲설록의 사건일지=범죄학자이자 범죄수사분석 전문가인 표창원 박사가 어린이들을 위해 쓴 탐정 추리소설. 국보급 문화재 도난 사건을 중심으로 한 흥미진진한 사건 전개, 예상치 못한 반전, 문화재를 둘러싼 아시아 각국의 험겨루기 등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까지 담았다. <문학수첩·1만2000원>

▲예절이 필요해!=식사 습관, 위생 관



리 등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본 생활 습관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기본적인 예절에 이르기까지 꼭 지켜야 할 약속,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알려 주는 생활 습관 사전. <한울림어린이·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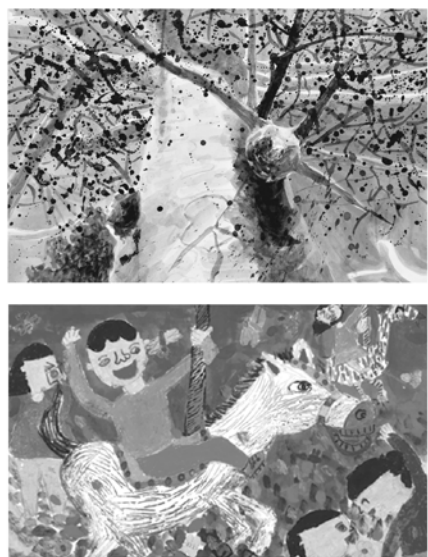
▲곤충전쟁=작지만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벌레들의 이야기. 곤충을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을 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이들을 생각하고 상상력 넘치는 곤충의 세계로 이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벌레나 곤충뿐만 아니라 외국의 벌레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봄나무·1만4000원>

▲거짓말이 나와 버렸어! 외=온 가족이 함께 보는 성장 그림책 시리즈. 유치원에 다니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가족들과 지내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권 '거짓말이 나와 버렸어!', 2권 '엄마 배속에 뭐가 들어 있지?', 3권 '체스를 누가 좋아해?', 4권 '감감한 건 싫어!'. <푸른숲주니어·각 권 9500원>

호남예술제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



전국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인 호남예술제 6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전시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최근 10여년간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 최고상 수상작 전시 호남예술제 출신, 작가, 심사위원 등 후원작가 작품 전시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88(입장료 무료)

2015. 8.13(목)~8.22(토) 오전10시 ~ 오후5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 2전시실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